

현대차 9조 새만금 투자… 전북 ‘AI·로봇·수소’ 산업 대전환

군산·김제 등 14개 시군에 투자
자동차·기계 산업 AI 전환하고
‘그린수소 혁신밸리’ 조성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지렛대 삼아 퍼지컬AI·로봇, 청정수소, AI데이터센터를 3대 축으로 하는 미래첨단산업 육성에 나선다.

앵커기업의 투자 효과를 새만금에 가두지 않고 14개 시군의 산업전환과 상생 성장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새만금 34만평 부지에 총 8조 9000억원을 투자한다.

100MW급 AI데이터센터에 5조 8000억원, 데이터센터와 수전해 설비에 전력을 공급할 재생에너지에 1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200MW급 수전해 플랜트(1조원)에서는 하루 18t의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연 1만 5000대 규모의 물류·배송 로봇 제조 공장도 AI 수소시티 조성이 더해진다.

도는 이 투자로 현대차 추산 1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 1000명의 고용 창



전북특별자치도가 퍼지컬AI·로봇, 청정수소, AI데이터센터를 3대 축으로 하는 미래첨단산업 육성에 나선다.
/젯GPT로 생성된 이미지

출을 기대하고 있다.

로봇 제조공장을 앵커로 연구개발부터 실증·인증, 부품 양산까지 잇는 로봇 생태계도 구축한다. 전북은 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97%를 생산하고 농기계·건설 기계가 집적되어 있어 퍼지컬AI를 실제 기계에 적용하기 좋은 여건을 갖췄다.

도는 민선 9기 공약인 한국퍼지컬AI 진흥원(가칭) 설립을 통해 상용차·농업·로봇·특장차·건설기계 실증센터를 갖추

고, 메가특구 지정으로 규제 부담 없는 검증 환경을 만든다. K-로봇 실증공유 센터는 로봇 핵심 부품의 R&D와 실증·인증을 지원한다. 전북대-현대차 공동 캠퍼스와 AI 마이스터고로 현장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

수소 분야에서는 생산-저장-활용을 잇는 그린수소 혁신밸리를 조성한다. 부안 수전해 실증으로 기술 국산화를 앞당기고, 새만금 수전해 플랜트가 적기에

들어서도록 인허가와 지역 내 그린수소 수요처 발굴을 지원한다. 완주에는 수소 상용모빌리티 특화단지를 지정해 밸류 체인을 연결한다. 그린수소 생산보조금 신설과 광역 수소 배관망 구축 등 정부 지원을 건의하고 수소 인프라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 효과는 새만금을 넘어, 군산·김제·부안은 부지와 항만,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 거점을, 전주·익산·완주·정읍은 자동차·기계 부품의 AI·로봇 전환을 이끄는 제조 혁신 중심축을 맡는다. 동부권은 농생명·신림·관광·생활서비스에 로봇과 AI를 접목하는 실증 거점으로 연결한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새만금을 투자 거점으로 삼되 14개 시군이 각자의 강점으로 공급망과 인력, 실증과 정주를 분담하는 전북 원팀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도는 앵커투자자 제도 개선, 국비 확보를 총괄하고 시군과 기업·인력·수요·정주기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전북)=조계철 기자

chonho8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문화관광공사

오색 ‘경북여행’ 상품 운영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상주·영양·포항·고령·청송 등 5개 지역의 가을 풍경을 다섯 가지 색과 연결한 관광상품 ‘색다른 경북여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품은 상주의 황금빛 다락, 영양의 하얀 자작나무숲, 포항의 푸른 바다, 고령의 초록빛 고분군, 청송의 붉은 사과밭 등 지역별 자연경관을 관광 콘텐츠로 구성했다.

관광지를 빠르게 둘러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풍경 속에서 충분히 머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일정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각 화차에는 대표 경관과 함께 인근 관광지, 지역 음식, 카페 등을 연계해 지역 내 체류시간과 관광 소비를 늘릴 계획이다.

/경북=김진곤 기자

경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경주시는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공간관리와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연내 최종 확정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농촌의 주거·산업·농업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촌공간 구조 설정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재생·활성화 과제 발굴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목포시, 김 산업·해상풍력 집중 육성

서남권 해양산업 거점 도약
상반기 김 수출액 1650억 기록

전남광주 목포시가 바다를 기반으로 한 해상풍력과 K-김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항만과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 서남권 해양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목포의 김산업은 수출 호조 등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목포시는 올해 상반기 김 수출액 1억 1076만 달러(약 165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한 규모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이다. 지난해에도 김 수출 1억 7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이러한 수출 경쟁력을 산업 기반 확충으로 연결하고 있다. 준공을 앞둔 수산식품수출단지(가공·연구·물류·수출 기능을 집적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로 조성된다.

또 국제마린김거래소 설립을 통해 목



김 가공 공장 모습.

포를 국내의 김 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김 수출 5000억 시대’를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해상풍력은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준공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가칭)를 기반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유지보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전KPS·KMC해운·국립목포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산업의 기술과 인력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목포(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포항 구룡포서 ‘국수 미식축제’ 열린다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포항시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구룡포 아라광장과 일본인 가옥거리 일원에서 ‘2026 포항 해뜨면 국수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포항의 대표 국수와 세계 각국의 이색 국수를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국수 만들기 체험과 구룡포의 음식 문화·역사·관광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축제장에는 ▲호미반도 국수존 ▲포항국수맛집존 ▲이색국수&글로벌존이 운영된다. 호미반도 국수존에서는 모리국수, 풍치당국수, 화국수, 흥계갈국수, 해풍국수 등을 맛볼 수 있으며, 포항국수맛집존에는 지역 국수 맛집들이 참여해 대표 메뉴를 선보인다. 이색국수&

글로벌존에서는 일본 가가와현의 사누키우동과 중국 양저우의 양춘면을 만나볼 수 있다. 제일국수공장과 함께하는 ‘해풍국수 체험’에서는 60년 된 국수 기계로 국수를 뽑아 바닷바람에 말리는 전통 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갓 만든 국수를 맛볼 수 있다. 특히 ‘해풍국수 체험’은 구룡포의 오랜 국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장호준 셰프의 토크콘서트와 국수 레시피 체험도 진행된다. 내달 3일에는 포항 특산물을 활용한 국수 요리 경연 ‘해뜨면 국수대전’이 열리며 장호준 셰프와 ‘아식이’ 등이 심사에 참여한다.

전통놀이 미션에서는 팔각건·투호 등을 활용하며, 미션을 완료하면 옛날국수 등 오후기 제품을 받을 수 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파주시, 한국국방연구원 유치 추진

접경지역·안보현장 강점 제시

파주시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파주 유치에 나섰다. 접경지역이라는 입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각종 규제를 감내해온 지역 특성을 유치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국국방연구원(정부 주택 공급 계획)에 해당 부지가 포함되면서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파주시는 이를 지역 성장동력 확보와 국방정책 연구 기능을 연계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가 강조하는 핵심 논리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다.

시는 최전방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상 지난 70여 년 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

법」 등에 따른 중첩 규제를 받아왔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 재산권 행사와 도시 개발, 기업 유치 등 지역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2025년 9월 강원도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대통령 발인과 올해 6월 국방부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정책 등 안보정책 환경의 변화를 들어 한국국방연구원 이전을 접경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정책 연구와 최전방 현장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유치 근거로 제시했다.

파주시는 지역 내 군사 기반시설과 접경지역 현장을 활용하면 현장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의견을 국방정책 연구에 반영하고, 연구 결과를 다시 현장과 국가안보 정책에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경북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막

22개국 26개 팀 참여

경북도는 지난 25일 중앙선1942안동역과 원도심 일원에서 ‘2026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막식을 열고 10월 4일까지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28회를 맞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글로벌 축제’로 선정됐다.

개막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권기창 안동시장, 주한 외교사절단과 해외 공연단, 시민·관광객 등이 함께했다.

국내외 공연단과 시민이 참여한 거리 퍼레이드는 중앙선1942안동역에서 출

발해 원도심을 누비며 각국의 전통춤과 음악, 가면문화를 선보였다. 메인무대에서는 22개국 26개 팀의 개막 퍼포먼스와 ‘과거의 기억’, ‘오늘의 춤’, ‘새로운 춤’, ‘모두의 춤’을 주제로 한 공연, 대동난장과 불꽃놀이가 이어졌다.

축제는 10월 4일까지 11일간 중앙선1942안동역, 탈춤공원, 원도심, 하회마을 등 안동시 일원에서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을 주제로 열린다. 한국의 탈춤을 중심으로 세계의 탈과 춤을 선보이고 세계탈놀이경연대회, 세계장작탈공모전, 시민 참여 공연 등을 진행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남도

내달 20일 투자 유치 설명회

경남도는 오는 10월 20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26 경상남도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연다. 수도권 소재 잠재 투자 기업 최고 경영자(CEO)와 주요 기업 관계자 300여 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설명회에서 우주항공, 방위산업, 첨단조선·해양,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 미래 모빌리티 등 주요 산업의 투자 기회와 투자 환경을 소개한다. 기업의 투자 단계와 수요에 맞춘 지원 제도와 투자 인센티브도 안내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